

영적 심판이

2011년 5월 21일에

시작되었다

심판날 동안의 삶 소책자 #1

2011년 5월 21일은 심판날에 관해서 세상이 본 일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날이었다. 빌보드에 광고가 나갔고 버스에도 홍보물이 붙여졌다. 이 메시지는 차량과 범퍼 스티커, 티셔츠, 홍보물이나 잡지 또 신문들에서 볼 수 있었다. 전 세계의 뉴스 매체들도 이날이 심판날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대하며 숨을 멈추고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아무일도 없었다. 생각했던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1년 5월 21일에 세계적인 지진도 참혹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은 다른 어느 날과 같이 그렇게 왔고 지나갔다. 외관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한시름을 놓으며 이 모든 주장을 조롱했다. 그들은 "봐라, 이모든 주장이 바보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 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즐거워하며 "아무도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간과한 점은 영적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이다. 영적인 심판은 다른 영적인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 "영적" 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곧 영이심을 선포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수 없으며, 오감으로도 분별할 수 없으니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존재하신다. 자연인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실을 이해한다. 우리는 또 성경이 영적인 책임을 이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이 영이시기때문에 성경이 영적인 진실로 가득 차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보이지 않는)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믿게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심판이 터무니 없다고 치부되는 것은 놀랄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터무니없다거나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복음, 성경과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하고 지독하게 눈이 멀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하여는 세상의 인도나 지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세상의 견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유일한 관심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다.

자, 여기서 그 질문을 해보자. 성경은 영적인 심판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가능한가? 성경에 이러한 생각에 대한 전례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찾아봐야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의 지식을 발견하게된다.

에덴에서의 첫번째 심판: 영적 심판

창세기에서 우리의 탐색을 시작해보자. 창조 직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들중 하나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다.

창세기 2장 16-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창조 후에 주신 이 한가지 명령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의 특정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명령은 직선적이고 모호하지 않은 선언이었다. 만일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부터 직접들었다면 완전하게 그 명령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있다. 슬프고 비극적인 이 세상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말라고 말씀하신 그 실과를 먹었다.

창세기 3장 3-6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단 하나뿐인 율법을 어겼다. 그들은 금단의 실과를 먹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죽지 않았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있는 역사적 기록을 전부 읽어보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후에 아담도 그 아내인 하와도 쓰러지지도 죽지도 않았다. 실제 성경은 하와가 금단의 실과를 먹은 후에 아이들을 낳았으며 그중

하나(아벨)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후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있다. 성경은 또한 아담이 수백 년을 더 살았고 그의 나이가 930살이 될 때까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있다.

창세기 5장 3-4절 아담이 일백 삼십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그 실과를 먹은 후에 수백 년을 더 살 수 있었을까? 혹시 하나님께 틀릴 수도 있는 것일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두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틀리실 수 없고 거짓을 말씀하실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 즉,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인류에 죽음을 내리셨을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이었던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 인간은 그의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성경은 인류의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살아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날 그는 영혼이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날에 그의 영혼이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이다. 구원은 죄인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우리의 공부의 요점은 "네가 그 실과를 먹는날에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단순히 선포하신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죽음을 당할 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죽음의 의미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의미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첫번째 중요한 심판이 사실은 영적인 심판이었다고 본다. 이것이 영적인 이유는 그날에 아무도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죽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탄은 "네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잖아" "보라 네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아있어" 라며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든 외형적으로 보면 사탄의 주장에 동의했을 것이다.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무엇인가 큰 일이 있었다. 영적인 범주 내에서는 무척이나 현실적이며 고통스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 영적으로 죽은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좋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하지만 그것이 2011년 5월 21일이 영적인 심판날이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어"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2011년 5월 21일이 심판날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금 당장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앞에 놓인 질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영적으로 내리실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립할 수 있다면 2011년 5월 21일이 심판날이었음을 지적하는 수많은 훌륭한 성경적 증거들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성경으로 돌아가 영적인 심판에 대해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잔의 상징성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잔으로 상징하신다.

시편 11장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더불어 악인에게 그물(덧, 함정, 올무)또한 내려치시려는 의도를 주목하길 바란다. 아마도 참혹한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한 인류에게 실제 불과 유황을 내리실 것으로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물이라면? 이것은 함정이다. 혹시 여러분은 실제로 덧이나 새장같은 것이 하늘에서 부터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물"을 더하셔서이 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진노의 잔이 영적인 잔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은 문자대로가 아고 영적인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21장 34-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2011년 5월 21일, 세상은 교회와 더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즐거움의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팎 포함)에게 그분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셨다.

두번째 영적인 심판: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셨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그 자녀들 대신에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광스런 속죄의 행위를 증명해보이시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런 실증을 해 보이시는 한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9, 42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 예수님을 파괴했는가? 아니다. 그런일은 없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면상으로 보여진 것은 슬픔과 고뇌에 찬 예수님 뿐, 그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겨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육체적인 심판이 아니었고 오히려 영적인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경험하시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심판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 이두가지의 중요한 심판은 완전히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된다. 위의 두가지의 심판 만으로도 심판 날이 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즉 이러한 성경말씀이 존재하므로,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생각들에 대한 진정한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조사를 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베뢰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나오는 것들에 관해 성실하게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사도행전 17장 10-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성경에서 나오는 정보를 단순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들은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또다른 영적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다른 심판이 있다. 신약시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교인들에 대한 심판 계획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무척 많은 정보를 제공하신다. 하나님은 역시 이세상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쏟아붓는 진노를 잔으로 상징하셨다.

예레미야 25장 15-18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잔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와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렘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에게 잔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 (세상 전체를 상징)에게 내리신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은 교회 시대가 끝 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심판은 1988년에 교회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떠났고, 그 즉시 이 세상 교회의 복음의 불이 꺼졌다. 이 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사실에 동요되지 않은채 오늘 날의 교회는 지속되고 있다.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성경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엄청난 성경의 가르침, 특히 이런 진지한 문제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이 심판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치부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안에 있을 때도 보지 못하였고 교회를 떠날 때도 보지 못하였다. 지금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을 뒤덮은 암흑은 영적인 암흑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택한자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인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들었고 또 깨달았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세가지 성경적인 심판들에 대해 진단해보고 주목할 만한 것을 찾아냈다. 즉 각각의 이 세가지 심판은 근본적으로 오직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사소하고 알기 어렵고 애매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주목할 만한 심판에 관하여 알아본 것이다. 과연 어떻게 에덴동산에서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큰 환난 기간에 신약시대 외형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심판들 중에서 이 세가지 보다 더 중요한 심판을 거론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즉, 성경은 영적인 심판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후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진정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가르치고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2011년 5월 21일에 하나님이 영적인 심판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성경은 그날 영적인 심판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준다.

사실 성경의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최종의 심판이 영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왜 진작부터 고려하지 못했나?" 하고 되물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소멸하실 것을 가르치심에 주목해야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2011년 5월 21일에 "심판날"로 알려진 영적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친다.

이 "영적인 심판"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며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물리적으로 나타나 모든 창조물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이다. 성경은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심판날"로 규정된 날들에 살고있음을 보여주신다. 현재 우리는 심판날에 살고있으며 불행하게도 다음 성경구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야 24장 17절 땅의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물론 이 무서운 진실은, 현재의 심판 기간의 특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우리에게 남긴다.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시대에 세상에 남아 아직도 살고있는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심판날 동안의 삶"이라는 다음의 소책자에서 이런 질문과 더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ebiblefellowshipworldwide.com
www.ebiblefellowship.com
<http://www.ebible2.com>**

**Visit our Facebook page:
www.facebook/ebiblefellowship**

**Also visit our YouTube Channel
www.youtube.com/user/ebiblefellowship1**

**You may send a message, question or
comment to: ebiblefellowship@juno.com**

**Or write to us at: E Bible Fellowship
P.O. Box 1393, Sharon Hill, PA 19079 USA**